

# 僑民廳新設 白紙化

## 박종상총영사 “實効性 없어 정부서 난색”

### 2重국적허용 法制化도 각종부작용 많아 어려워

한국정부는 해외한인사회의 교민청 신설건의에 대해 ▲교민청신설에 편제상 어려움이 따르고 ▲교민청이 신설해도 실질적으로 담당할만한 업무가 별로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상 LA총영사는 22일 영사관을 방문한 LA 한인회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교민청신설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종상총영사는 “그동안 LA

한인회등 해외교포사회의 교민청신설건의가 계속되어온데 따라 정부는 최근 이문제를 신중히 검토했으나 검토결과 현실적에서 교민청신설은 실용성이 별로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교민청의 필요성이 좀더 설득력있게 제기될 경우, 이문제가 다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교민청신설문제가 백지화됐음을 시사했다.

박종상총영사는 “교민청은 정부원칙상 정부부처상하에 속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교민업무는 외무부를 비롯, 법무부(국적, 출입국업무), 노동부(해외인력수출), 재무부(재산권) 등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만큼 교민청을 한

부처에 소속시키기가 힘들고 기존 부처에서 교민



▲박종상총영사(뒷편 왼쪽)가 교민청신설등 한인사회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상총영사 오른쪽이 김관훈한인회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 기구 신설의 필요성이 별로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종상총영사는 또 이중국적 허용건의에 대해서는 “현 국적법상 해외교포가 외국시민권을 받더라도 요건행위로서 국적포기 신고를 해야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국적이 묵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미국과의 외교관계상 마찰을 여러가지 예상되는 부작용때문에 이중국적 허용의 법제화는 힘들다는 정부입장을 설명했다.

총영사의 한인회방문은 대한 단방의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김관훈회장은 한인회관계자들은 방법론 한인사회 원안사업들에 총영사관이 협조해줄것을 요청했으며 총영사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이날 총영사관을 방문한 한인회인사는 김희장을 비롯 이정원이사장, 박창선 부이사장, 이병문이사, 오봉관사무국장등이며 총영사관측에서는 채수동 교민담당영사가 배석했다.

<조운성기자>

## 社說

# 反美感情과 거북스런 교포立場

휴즈박스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은 위험신호다. 그것은 전류가 세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이상 계속되면 누전이 되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예고기도 하다. 요즘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미테도의 스파크는 일부 한국인들의 반미감정흐름이 강도에 있어 결코 약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AP통신이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기운에는 강원대학학생들이 명파대에 성조기를 그려놓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다. 코리안인에서 미국시민이기도한 교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이와같은 행동이 잘못된 것이나 못된것이 아니라 따지기에 앞서 마음속부터 씩씩하다.

반미감정의 폭발은 미주교포들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태가 악화되면 교포들은 안팎으로 입장이 거북해진다. 우선 최근에 반미감정과 관련하여 등장 나타난 현상이 한국 대학교에 유학중인 미국교포 자녀들에 대한 한국대학생들의 차가운 눈초리다.

아직 심각한 현상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공부하고있는 교포유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포학생들이 이유없이 미주교포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때가 많고 어떤때는 인격모욕에 가까운 인사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조국을 배우라고 자녀들을 한국에 보낸 부모들의 입장에서 잠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당장 지금 미주교포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서울로 여행해보면 한국의 분위기가 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음을 직감한다.

전에는 교포어린이나 중고교 학생들이 거리에서 영어로 떠들면 사람들이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으나 이제는

행인들중에 아니잖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꽤 있는것을 목격한다. 전국체전에서 미주교포 청소년들이 한국말을 쓰지않고 영어로만 말한다고 체전임원들이 비난해 미주선수단 임원들이 “미국을 모르는 사고방식”이라고 강력히 항의한적도 있다. 이런 현상은 전에 없던 일들이다.

우리는 최근 주한미군병사들이 우랄(미국)에 있는 부모들에게 한국근무가 무섭고 불쾌하며 자신이 미국을 싫어하여하는 나라에서 와서 왜 병역을 해주어야하는지 회의가 생긴다고 호소편지를 자주 보낸다는 사실도 주목을 받고 분위기가 그 정도인가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다.

베를린장벽이 쏠다해서 독일인들의 힘으로 허물수 없는것처럼 한국의 미군주들은 한국인들이 싫다고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미군이 철수할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동남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또 얼마전까지는 한국이 미군을 필요로해 미군이 머물렀지만 지금은 일본과 중국의 급격한 세력확장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교포들의 입장에서 주한미군관계에 영향력을 미칠수도 없고 다만 민간인차원에서 한미우호를 새로 다짐하는 캠페인을 연구해야겠다는것이 절실한 생각이다.

한국이 최근 공산국가 수교를 트는등 범세계를 열고 있지만 누가봐도 아직은 한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은 미국이다.

아무리 어두운 낮이라도 가장 밝은 밤보다 더 밝다는 것을 한미우호관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것으로 한다.

북한을 방문하고 오는 4월 1일 LA로 돌아온다.

## 불탄집 침실서 30대여인 시체

방화로 불탄 집의 침실에서 불에 타 죽은 시체가 발견됐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인은 나이가 30세 전후로 22일 아침 화재로 타 버린 잉글우드스즈재 한 주택에서 가파게 그늘려 죽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국은 화재현장에서 가연성물질을 발견, 화재원인을 방화로 단정하고 있다.

## LA 상공인들 訪北 절차무시 유감표명

LA 한인상공회의소의 전신인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 전임회장은 23일 상오8시 뉴서울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LA한인상공회의소 현회장단이 방문일정, 목적, 초청자등에 대해 공식발표이 북한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들은 LA한인상공회의소가 남가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2만여한인상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회장단이 북한방문을 한인사회에 알려야 할 의무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회장단이 상공회의소의 명의를 갖고 북한을 방문하면서 이 사도 아니고 회원도 아닌 사람을 방문단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 의학 박사 김영애 내과

일반내과 ·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료과목  
• 기관지질환, 천식, 결핵, 폐렴  
• 기관지 내시경, 폐기능 검사  
•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간질환  
• 각종내과 질환  
한인연회 OFFICE (213)738-5066 800 S. Westmeland Ave. #207 LA, CA 90006  
Cedars Sinai Medical Towers (시디스 시나이) 665 W. Third St. #300 LA, CA 90048  
“베리소병원 건넌터”

# 한인경영 「월서 컴퓨터칼리지」 이민詐欺 혐의 곧수사

## 이민국-검찰 일부 사면자에 현혹정보제공 학교측 “등록전告示, 혐의사실 없다”

연방이민국과 오리엔티카운티지방검찰청은 22일 산타아나시검사회의실에서 이민사기와 관련된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인경영의 「월서 컴퓨터칼리지」가 일부 사면자들에게 현혹된 정보를 제공

공해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곧 수사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이 회견에서 OC이민자 권리보호연합회의 로빈·블래웰 코디네이터는 월서컴퓨터칼리지 가든즈 브룩부교(15751 Brookhurst #132)는 일부 사면자들에게 ESL(English as a Second Lanuage)코스를 사면자 영어코스 소개,

사면자들을 현혹시켰을뿐 아니라 사면자들에게는 필요없는 컴퓨터코스(수강비 7천달러)까지 수강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해럴드·이켈머씨는 「월서컴퓨터 칼리지」에 대한 불평을 접수받았다”고 밝힌데 이어 “보충설명에 나선 블랙웰코디네이터는

「지난 20일 산타아나 델하이커뮤니티센터에서 히스패닉계 학생3명으로부터 이민사기에 대한 불평을 접수 받았다」고 월서컴퓨터칼리지의 사실을 밝혔다.

또한 델하이커뮤니티센터 코도바디렉터는 「월서컴퓨터칼리지」에 등록했던 히스패닉계 학생수가 40명이상이나 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월서컴퓨터칼리지에 대해 불평을 가진 학생수가 더 늘어날지는 두고 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월서컴퓨터칼리지 측은 이같은 이민사기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월서컴퓨터칼리지가 그로브지점의 앨런·슬레이맨디렉터는 22일 “수강생들에게 사면자 영어교육유기권이 아닌 것을 등록이전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차일권기자>

## 본국발령 이완구영사에 LAPD서 감사패 전달

LAPD는 이달말께 서울로 귀일하는 LA총영사관의 이완구치안담당영사(38)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LAPD동양인수사과의 집·다르과장과 함상진, 마이클·양수사관은 23일 영사관을 방문, 수사및 방법론등에 감사한다는



▲이달말께 본국으로 귀일하는 LA총영사관의 이완구치안담당영사(오른쪽에서 두번째)는 23일 LAPD 동양인수사과의 집·다르과장으로부터 LAPD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 婆尼周生傳 古典列記

바니주생전 <92> 고우영

가림없는 진실, 공정한 논평 치우침없는 기사가 바로 우리의 지표입니다!

광고는 낭비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광고문의 ☎955-1234

## 한국일보가 가장 많이 읽히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지역에서 신문입니다